

감염증 매개 모기

흰줄숲모기
(줄무늬모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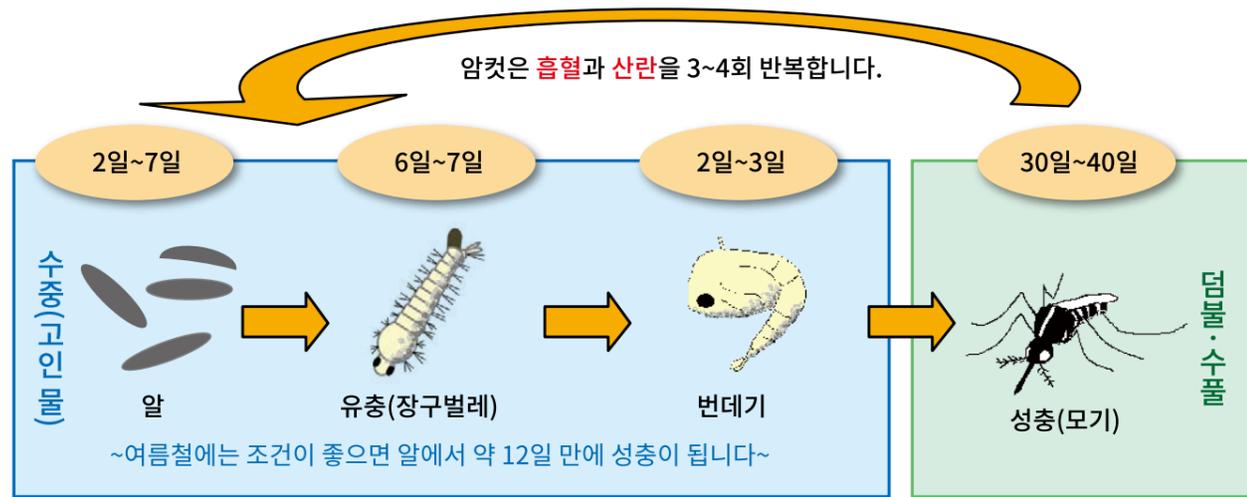


덴기열 외에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의 매개 모기이기도 합니다.

황열 모기는 해외에서 주로 덴기열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모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쿄도의 조사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국제 공항 주변에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염병을 매개하는 주요 모기로는 빨간집모기(웨스트나일열), 지하집모기(웨스트나일열), 작은빨간집모기(웨스트나일열, 일본 뇌염), 학질 모기(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흰줄숲모기의 생태



관련 정보: 도쿄도 홈페이지(일본어)

- 감염증 매개 모기 대책에 관한 안내(도쿄도 보건국)
도쿄도의 감염증 매개 모기 대책, 팸플릿 등에 관한 안내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kankyo/eisei/baikaikataisaku/index.html>
- 도쿄도의 감염증 매개 모기 대책(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감염증 매개 모기 서베이런스 결과 등에 관하여
https://www.tmiph.metro.tokyo.lg.jp/kj_kankyo/mosq/
- 모기 매개 감염증(도쿄도 감염증정보센터)
모기가 매개인 감염증의 종류와 증상, 고위험 지점에 관하여
<https://idsc.tmiph.metro.tokyo.lg.jp/diseases/mosquito/>

상담 창구

모기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주거지의 특별구(구청 및 보건소) 및 시정촌(시청·읍면 사무소)의 쥐·곤충 등의 방제 사무 관할 부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시정촌(하치오지시와 마치다시를 제외)은 관할 **각 보건소 생활환경안전과 환경위생 담당**에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없으면 안전·안심!

— 감염증 매개 모기의 발생 방지 대책 —



2014년 일본에서는 약 70년 만에 덴기열의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고 2016년 2월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4류 감염증에 추가되었습니다. 덴기열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도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발병하는 감염증입니다. 이 모기들이 매개가 되는 감염증의 만연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기 발생 방지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기열·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덴기열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덴기열바이러스나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감염증으로 주요 매개 모기는 흰줄숲모기입니다. 사람과 모기 사이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반복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납니다. 현재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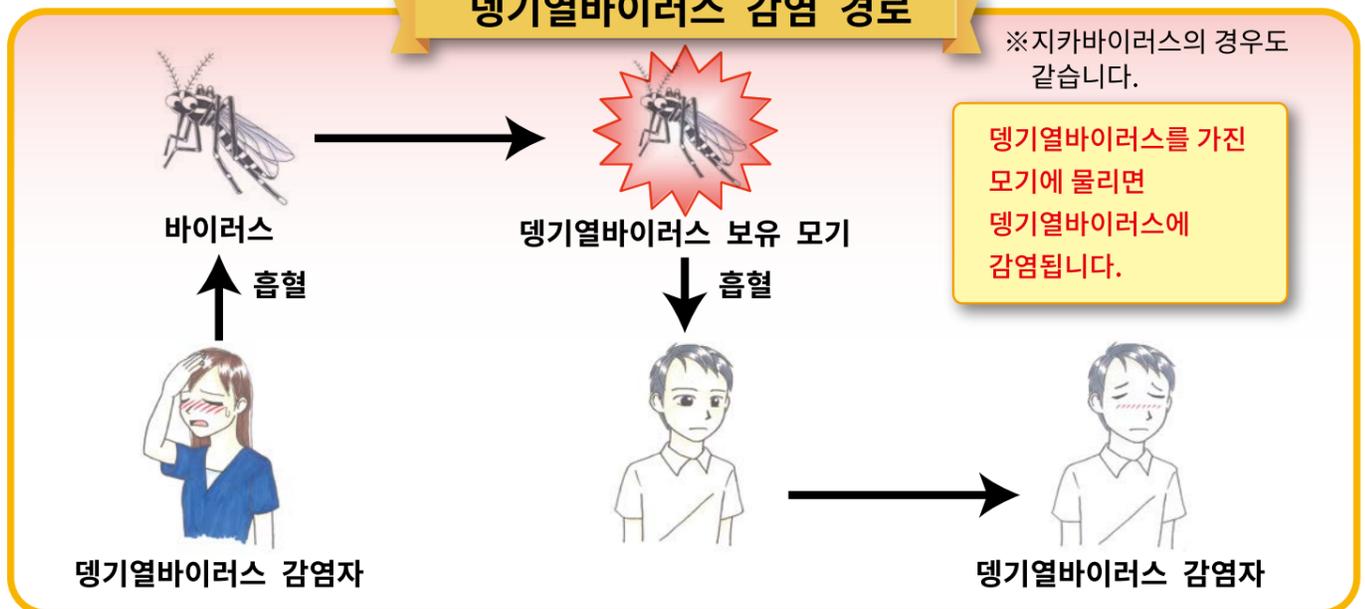
■ 덴기열의 증상

모기에 물린 지 2일~14일(대부분 3일~7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38°C~40°C), 두통, 관절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1주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회복됩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

모기에 물린 지 2일~12일(대부분은 2일~7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대부분 38.5°C 이하), 두통, 관절통, 발진,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덴기열보다 증세가 가벼우며 대부분 2~7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회복됩니다.

덴기열바이러스 감염 경로



모기가 매개가 되는 감염증 예방

덴기열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유효한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줄숲모기 등을 줄이는 대책을 실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곳이 잠복 장소

유충 대책 "모기를 줄이는 포인트!"

모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 속에 서식하는 유충(장구벌레)을 퇴치하는 것이 가장 유효합니다(유충 대책).

흰줄숲모기는 활동 범위가 좁아서 소량의 고인 물에서도 발생합니다. 자주 물리는 장소에는 주변에 모기 발생원이 되는 고인 물이나 성충이 서식하기 좋은 덩굴 등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로 발생원 대책을 실시하여 모기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유충 대책

- 고인 물이 없도록 합니다.
- 필요없는 물건은 치웁니다.
- 주 1회 청소를 하거나 새로운 물로 갈도록 합니다.
- ★ 이 대책은 건물의 종류·용도·장소 등을 불문하고 모기 발생 방지에 유효한 대책입니다.

성충 대책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포인트!"

흰줄숲모기는 덩굴이나 수풀에 서식하며 낮에 자주 흡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성충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인 덩굴이나 수풀의 풀베기 등도 효과가 있습니다(성충 대책).

성충 대책

- 피부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야외에서는 긴 소매 셔츠, 긴 바지 등을 착용하고 피부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모기퇴치제를 사용한다
퇴치제는 피부 등에 발라서 모기의 흡혈 행동을 막는 약입니다. 사용 시에는 주의 사항을 잘 지켜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 덩굴, 수풀을 없앤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빛이 잘 들지 않는 덩굴이나 수풀 등은 가지치기나 풀베기를 해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빛이 잘 들게 합니다.
- 방충망을 설치한다.
창문 등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실내로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살충제 사용 시의 주의 사항

가정용 살충제 등의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시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후에 사용하십시오.

빗물받이 뚜껑·하수구 마개의 유충 대책에는 곤충성장제어제(IGR)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덩굴·풀숲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나 풀베기를 해서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빗물받이 뚜껑·하수구 마개
자주 청소한다
곤충 성장 제어제(IGR)를
투입한다

막힌 길도랑
청소를 해서 막힌 것을 제거한다

애완 동물의 물그릇
쓰지 않으면 치운다

화분 받침
• 쓰지 않을 때는 치운다
• 물을 주 1회 이상 갈아준다
• 얹어둔다

살수·방화용으로
미리 퍼둔 물

